

페퍼저축은행 눈물겨운 분투...지독한 성장통

새해 첫 경기 인삼공사에 0-3 속절없는 14연패
얇은 선수층·체력 저하·경험 부족에 경기력 바닥
김형실 감독 “신인 중용 성장 유도 방향 전환”

여자프로배구 ‘막내팀’ 페퍼저축은행이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일 KGC인삼공사와의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17-25 13-25 18-25)으로 패하며 14연패를 기록했다. 이는 여자부 역대 정규시즌 최다 연패 공동 3위에 해당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이한비(12득점)와 박경현(9득점)이 분전했으나 외국인 선수 엘리자베스가 8득점에 그쳐 힘을 쓰지 못했다. 14연패 기간 페퍼저축은행이 가져간 세트는 단 6세트뿐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문가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기존 팀들과 전력 차가 크고 선수층이 얇아 최악의 분투였다고 단 1승을 거두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행히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9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창단 첫 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이 보여준 ‘막내의 반란’은 여기까지였다. 첫 승 이후 예상대로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수들은 말 그대로 약전고투중이다. 주전 선수 중 안 아픈 선수들이 없다. 지난 시즌까지 다른 팀에서 주로 백업으로 뛰었던 페퍼저축은행 주전 선수들은 이번 시즌 갑자기 늘어나 출전 시간이 많이 늘었다. 흥국생명에서 뛰다가 특별지명선수로 페퍼저축은행에 입단한 이한비도 그렇다. 페퍼저축은행의 초대 주장인 이한비는 책임감을 느끼고 무리하게 출전을 강행하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 스트레스에 따른 위장 장애와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중이다. 이한비는 지난 달 29일 흥국생명전을 마치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김형실 감독은 “그동안 이한비가 무리했다”며 “이제는 좀 휴식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레프트 공격수 하혜진은 왼쪽 발목 피로 누적로 몸이 좋지 않고 외국인 선수 엘리자베스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또 레프트 박경현은 발바닥 통증이라는 고질적인 부상을 안고 뛰는 중이다. 페퍼저축은행의 앞길은 더 험난하다. 대적할 만한 팀이 보이지 않는다. 시즌 초반 페퍼저축은행과 꼴찌 싸움을 하던 흥국생명은 최근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4연승을 기록했다. 내홍을 겪은 기업은행은 김호철 신임 감독을 중심으로 뽕뽕 뭉치면서 연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어느덧 페퍼저축은행의 연패 숫자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경합이 부족한 신생팀의 한계도 드러난다. 분위기를 살려 경기를 풀어나가도 뒷심 부족으로 매번 승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2월 6일 기업은행 전까지 연패를 탈출하지 못하면 2012-2013시즌 KGC인삼공사가 남긴 여자 프로배구 최다 연패 기록(20연패) 경신도 시간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김형실 감독은 전력 차를 인정하고 승리에 목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어린 선수들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지난 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득점 후 파이팅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제공

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김 감독은 “이제 세터 박사랑, 센터 서재원 등 신인드래프트에서 뽑은 고교생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늘릴 것”이라며 “팀을 잘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9월 신인드래프트에서 고교 졸업예정 선수 5명을 뽑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5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를 갖는다. /조혜원 기자



알렉스 강스파이크! 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 대 우리카드 경기. 우리카드 알렉스 페헤이라가 스파이크 공격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가 세트 스코어 3-0(25-16 25-21 26-24)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KBO 경기력 향상·서비스 개선 추진

정지택 총재 “선수 개인별 스트라이크존 적용”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을 맞아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경기력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지택 KBO 총재는 2022년 새해 첫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은 호랑이해의 기운을 받아 KBO리그도 함차게 한 해를 시작하겠다”며 “급변하는 스포츠산업에 발맞춰 선수 이미지와 영상을 디지털로 바꾼 KBO리그 대체불가토큰(NFT) 개발을 세밀하게 준비해 미래

세대 맞춤형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라운드와 생생한 모습을 담은 KBO리그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재는 또 “야구의 본질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즌부터는 스트라이크 존을 유연하게 적용해 타자 키에 맞춰 선수 개인별 스트라이크 존

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크 존 개선을 통해 볼넷 감소, 공격적인 투구와 적극적인 타격을 유도해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했다. KBO 사무국은 올해 황재우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팬의 기대에 어우러지는 활약을 펼치도록 전폭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기술위원회 구성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코치진 선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적인 훈련 메뉴얼 배포, 종합적인 아마추어 야구 지원책 등으로 KBO리그 미래인 유망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NC, 나성범 보상으로 좌완 하준영 지명

NC 다이노스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KIA 타이거즈로 이적한 나성범(32)의 보상으로 왼손 투수 하준영(22)을 지명했다. 성남고 졸업 후 KIA에 입단한 하준영은 프로 통산 74경기에 등판해 6승 2패, 홀드 15개, 평균자책점 5.88을 기록했다. 임선남 NC 단장은 “하준영이 뛰어난 구위를 갖춘 젊은 좌완 투수”라며 “지난해 5월 팔꿈치 수술을 하고 현재 재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재활 관련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기량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

했다. 이어 “내년 시즌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준영은 2월 스프링캠프 일정에 맞춰 다이노스에 합류한다. 나성범은 이번 겨울 6년 최대 150억원을 받는 조건에 KIA 유니폼을 입었다. KIA는 FA 보상 규정에 따라 NC에 하준영을 보내고 나성범의 올해 연봉(7억8,000만원)의 200%인 15억6,000만원도 함께 준다. /연합뉴스



하준영

광주FC 최만희 대표이사 사임

2부 강등에 책임

최만희 광주FC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광주FC는 최만희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광주FC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일 “팀이 2부리그로 강등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개인적으로는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진 이유도 있다”면서 “12월 31일에 구단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는 물러나지만 이경호 감독 체제로 구단이 승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사임은 지난해 1월 4일 광주 축구단 경영과 행정능력 체제의 일환으로 팀에 부담했다. 구단 초대 감독(2011-2012)이기도 한 그는 광주FC 시스템 개편을 위한 모색과 내부 쇄신을 내세웠다. 김성규 광주FC 김성규 사무처장은 “상법에 따라 시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자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광주FC의 이사회 선임 기준으로 추후 선임할 예정이다. 승격을 위해 경험을 갖춘 좋은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손흥민 황금 프리킥 새해 열었다

왓퍼드전 결승골 도움 토트넘 1-0 승리

손흥민(30·토트넘)이 새해 첫 경기에서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호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무패 행진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21-2022 EPL 21라운드 왓퍼드와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 0-0으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으로 다빈손 산체스의 헤딩 결승골을 도왔다. 올 시즌 손흥민의 리그 3호 도움.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만 8골 3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를 포함하면 9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토트넘은 후반 51분에 나온 극적인 결승골로 왓퍼드에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 정규리그 8경기 무패(5승 3무)를 이어가며 6위(승점 33·10승 3무 5패)로 올라섰다. 반면 6연패에 빠진 왓퍼드는 17위(승점 13·4승 1무 13패)에 그쳤다. 토트넘은 전반부터 왓퍼드를 상대로 공세를 펼쳤으나,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후반 공격 주도권 역시 대부분 토

트넘이 잡은 가운데 0의 균형을 한동안 이어졌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후반 22분 문전에서 백힐 슈팅으로 득점을 노려왔으나, 골대를 외면했다. 기다리던 득점포는 마침내 추가 시간에 터졌다. 후반 51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찬 프리킥을 산체스가 머리로 마무리해 한 골차 승리를 매조했다. /연합뉴스

2일(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21-2022 EPL 21라운드 왓퍼드와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토트넘 손흥민(오른쪽)이 경기 중 도움 공세를 펼쳤고, 결승골을 도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손흥민